

불화서 배우는 불교의 진리

정병삼 교수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

사찰을 찾으면 늘 보게 되는 것이 불화이지만, 그 뜻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불자들이 오래 법당에 걸려 있는 것쯤으로 지나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화의 내용을 알고 사찰을 찾으면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가 쓴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폴빛)가 돋보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 책은 불화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해 준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절에서 늘 보던 불화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250여 장의 불화사진이 수록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절에서 흔히 접하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풀어 쓴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반대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느 한 부분이나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유용적 절하다. 또한 이런 시도는 불교 출판물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하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웃음꽃 핀 불자가정 위하여

혜주스님 '...불교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교리·예절·불교동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생활불교를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불교가 생활 속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여러 사찰과 신령단체에서 '불교 생활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불교는 생활의 불교화에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생활 불교인지를 성실하게 묻고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포항 육천사 부설 연화유치원장 혜주스님이 내놓은 <가축이 함께 읽는 불교이야기>(폴빛)는 주목할 만하다.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불교신행의 기본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쓴 이 책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든실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 의도는 불자가정 만들기

혜주스님은 유치원생들이 다들 통해 예의범절과 불교적 심성을 갖게 하기위해 매주 다독을 지도하고 있다.

이다. 이는 생활불교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글쓰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딱한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가족들이 함께 읽으면서 불심을 함양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

부처님의 생애(팔상록)는 그림과 함께 읽는 이야기 형식으로, 오가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팔경도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변형했고, 불교의 5대 명절을 통해 불교의 기본예절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물론 기초교리와 불교 동화들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불교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어른들에게는 불교의 기초지식을 탄탄하게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철저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전개해 간다. 그래서 글의 소재



도 다양하다. 부처님의 생애와 보살의 의미에서부터 심우도,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 <부모은경>, 불교 상징물, 사찰 예절, 극락과 지옥, 대레까지 펼쳐 놓는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글쓰이가 풀어 들인 '어린이 다레'는 이 책을 빛나게 하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만든 어린이 다레편은 차 문화 교육서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다.

사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책을 펴 내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어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경전과 교리들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일러줘야 할지는 보통 고 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칫하면 조잡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볼 때, 이 책은 아쉬운 점이 보인다. 고어투의 문장과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글쓰이가 20여 년간 유아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재미있게 불교지식을 익히고 행할 수 있도록 한 시도란 점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물론일 만하다.

황목사 동국대학교수(불교아동학과)는 "방대한 경전을 유아교육에 적용시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난점을 극복한 책이 있다면 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불교 유아교육과 어린이 포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글쓰이는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 습득보다 '불자가정에 어떻게 불성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무게를 둔다. 불자들이 좀 더 법원에 다가서고자 할 때, 초심자이건, 아니 신심이 돈독한 불자일 수록 더욱 이 질문은 절실하다.

이 질문을 놓고 오래 숙고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불자들의 묵일 것이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고대 인도인의 잠언시 모음집

재연스님 '수바시파'



재연스님이 인도 잠언시를 모아 엮은 <수바시파>(자음과모음)를 내놓았다. 지난해 <인상> 이후 처음으로 펴낸 이 책은, 고대 인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 온 고전시이다.

인도 문화 가운데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특권층의 장르라 한다면, 수바시파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들에 의해 구전돼 온 다양한 주제와 주제, 속담, 경구, 풍자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수바시파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 인간의 탄생과 고뇌, 질병과 죽음, 삶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이 시집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삶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바시파 시들의 주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바시파 모음은 힌두교도들의 생의 목표인 종교, 부(재물), 사랑, 해탈 등 이 네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진다. 5천5백원. 김중근 기자

'대장엄론경'

화룡스님 해설



마명스님이 수행의 요체를 이야기체로 풀어 쓴 <대장엄론경>(운주사)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 나왔다.

불교의 역사와 부처님의 전기, 그리고 유향, 본생담 등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보시의 공덕과 마음가짐 그리고 참된 보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비롯 울바른 공양이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90여 개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주제별로 엮여져 있는 <대장엄론경>은 탐과 승배, 지계, 보시, 인욕정진, 소욕지족 등 여러 면에 걸쳐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빼대는 삼보 승배이다. 또 재가불교의 규범과 보시 그리고 영불의 공덕을 설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유식삼십송서'

박인성씨 번역



스티라마데(安曇·510~570년경)가 주석한 <유식삼십송서>(민족사)이 번역돼 나왔다. 바수반두(世親·320~400년경)가, <해심밀경> <대승아비달마경> <유가사지론>에서 <섭대승론>까지 유식학의 요체를 30개의 송(頌) 속에 담아 놓은 논서 <유식삼십송>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유식유어론 뒤 송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 책의 번역 출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인도불교의 큰 흐름인 유식 불교를 그대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논자들이 쓴 한역본을 교과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돼 있는 <성유식론>등 유식문헌을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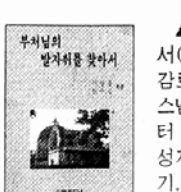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어른 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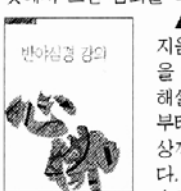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허버드에서 회계사까지	현 각	얼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림
4	공정경 경해	김 용 옥	통나무
5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옥	통나무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오계이야기	일 타	효림
8	좌선수행법	남 민 수	불교시대사
9	부처님게 재물 일면	스티븐미켈	여시아문
10	포교방법론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도서 안내:(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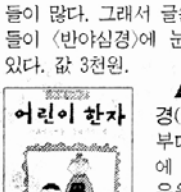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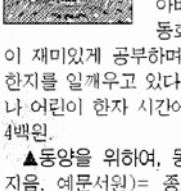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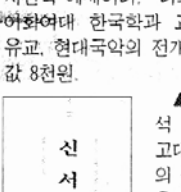
반야심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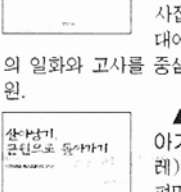
어린이 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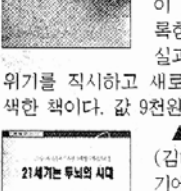
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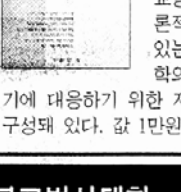
살아남기



21세기는 두뇌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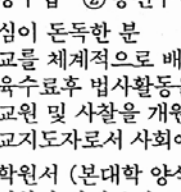
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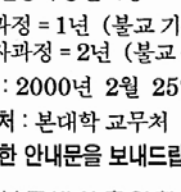
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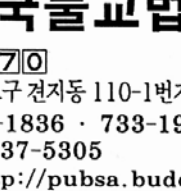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

21세기